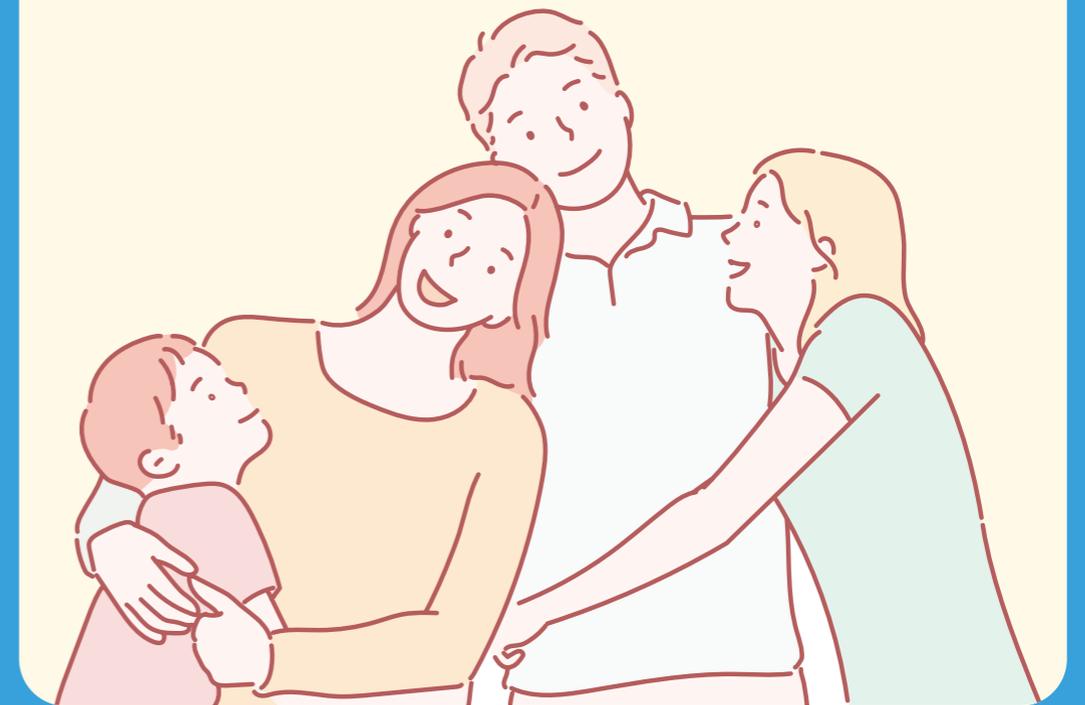


2023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3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2023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Contents

01. 발간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발간사
02. 축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축사
03. 사업소개 및 현황	사업목적 사업목표 지원내용 지원현황
04. 사회복지사 이야기	사례관리자 Q&A
05. 사회복지사 어워즈 수상작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경기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고립·은둔 청년의 희망의 디딤돌
 - 고립·은둔 청년의 가정해체 극복기
-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
 [경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취약가정에 전해진 희망의 빛
 -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세 가족 이야기
- [서울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고립·은둔 청년, 꿈을 찾아 세상 속으로
 -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 이야기
- [대구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중증질환 가족에게 전해진 마지막 위로
 - 중증질환자 자녀의 돌봄 공백 해결과 일상 회복기
- [서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의지를 되찾는 여정
 - 고립·은둔 청년의 변화 이야기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전북 평화사회복지관]
 단절된 1인 중장년 가구에 빛과 온기를
 - 중장년 1인가구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삶으로
- [부산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조손가정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 가족과의 이별...그리고 조손 가정의 일상 회복하기
- [경기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운 변화
 - 중장년 1인가구 장애인 당사자 이야기



01 발간사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식되었으나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 돌봄, 사회적 고립 가구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를 강화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분들과 협력하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개월 동안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고립·은둔 청년, 독거노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1,705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학습비, 재해·재난구호비 등을 지원하며 따뜻한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에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했고 수상을 한 8개의 사회복지관의 참여 소감과, 저희의 작은 도움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8개 가정의 이야기를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어두운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은 가정들의 모습을 통해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서로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한 미소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는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온기를 나눠가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축사

신 사회복지 수요층 발생, 사회서비스 혁신 및 확대 등 사회복지 정책변화 속에서 사회복지관은 지난 100여년 간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복지시설로서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발굴 및 지원, 지역 내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또한 전국 사회복지관과 1만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하는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례관리에 기반한 가구별 상황과 욕구에 따른 영역별 지원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지역 내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7개월간 1인 노인가구, 조손가정,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기타 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 1,705가구가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표창 및 연수 등으로 사례관리 실무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사례집 발간 등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노고와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응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례관리 활성화에 큰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 및 가구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지역, 연령, 개인 상황 등에 따른 문제 상황과 욕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드높아질 것입니다.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 큰 힘을 보태주시는 신한금융 희망재단과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각 가정에 누구보다 열정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담당 실무자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변화와 사회문제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사업 소개 및 현황

- 사업목적 및 목표
- 세부 내용
- 지원현황



사업 소개 및 현황

2023년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사례관리 자원연계와 사례관리자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관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2. 사업목표

- ① 취약계층이 가지는 복합적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② 사례관리자의 역할 및 성과에 따른 다양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지원내용

- ①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 ② 지원대상: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중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80% 이하)
- ③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단순/집중 사례*로 분류하여 영역별 지원	
	영역	지원내용
	생계비	주부식비, 공과금, 의복비 등 생계유지 비용
	의료비	입원, 치료비, 심리-정서 관련 검사 및 치료비 등
	교육비	기초학습 및 진로 지원, 학습 물품 지원 등
	주거비	월세,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재해·재난 구호비	재해·재난으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 및 의료비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사례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 진행 · 우수사례 시상 및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상(1개소): 수상자 소속팀 해외 연수 워크샵 -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4개소): 수상자 소속팀 국내 연수 워크샵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3개소): 스마트 기기 지원 	

④ 지원금액

구분	내용
대상자	· 단순사례: 자원연계로 문제 해결 가능한 사례 (최대 100만원 지원) · 집중사례: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 (최대 300만원 지원)
수행기관	· 집중사례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 사례당 25만원 지원

사례관리란?

지역사회 내에 심리, 정서, 경제, 의료, 고용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해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 모니터링하는 일.

4. 지원현황

차수별 지원가구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총계
단순사례	326	86	234	128	201	224	148	1,347
집중사례	179	28	71	43	37	-	-	358
총계	505	114	305	171	238	224	148	1,705

*부적격·지원 철회 가구 38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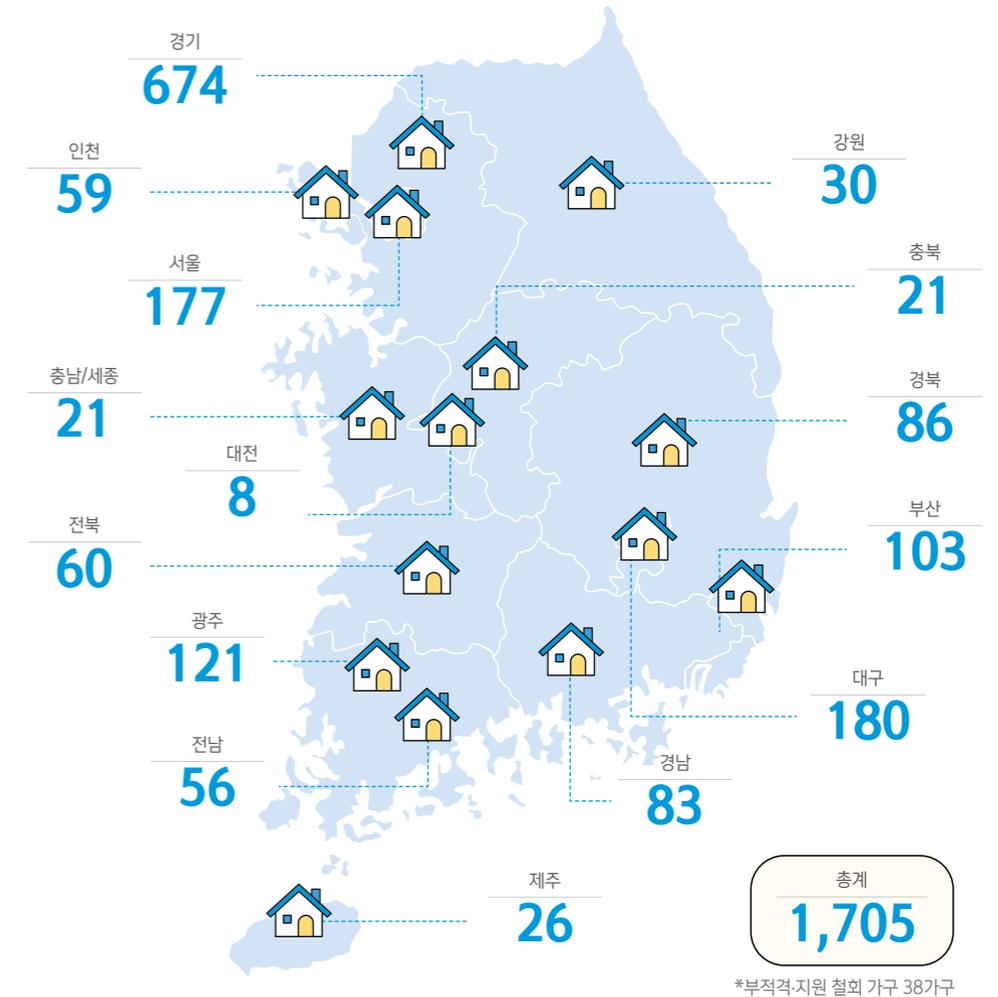
지원 예산 (단위: 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단순사례	310,853,820	81,860,000	218,900,000	124,682,280
집중사례	511,727,045	83,659,000	211,750,000	125,515,130
집중사례 운영비	44,250,000	7,000,000	17,750,000	10,750,000
총계	866,830,865	172,519,000	448,400,000	260,947,410

구분	5차	6차	7차	총계
단순사례	197,090,000	219,871,300	146,360,080	1,299,563,480
집중사례	107,671,000	-	-	1,040,322,175
집중사례 운영비	9,250,000	-	-	89,000,000
총계	314,011,000	219,817,300	146,360,080	2,428,885,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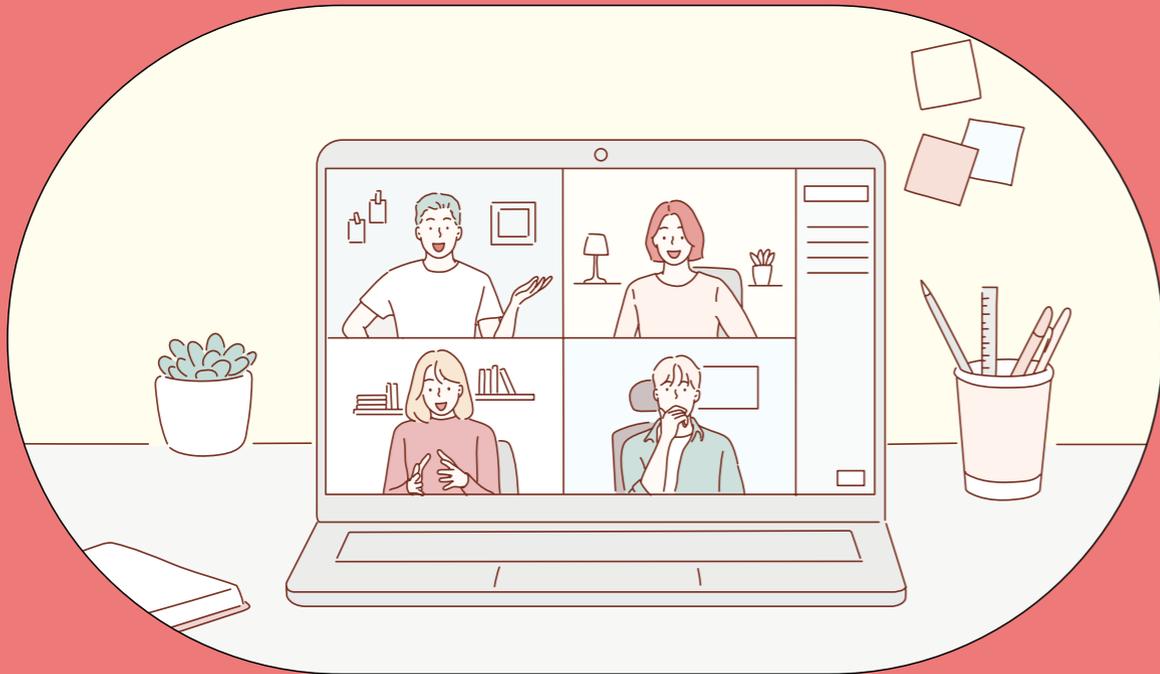
지역별 지원 가구



*부적격·지원 철회 가구 38가구

04. 사회복지사 이야기

- 경기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 경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대구 대구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전북 평화사회복지관
- 부산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 경기 고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야기

사회복지사 Q&A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자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원서운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원서운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수사례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니 대상자분께 적합한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기쁩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이번 사업 신청으로 대상자분들이 느끼는 위기가도가 완화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위기가도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길 원했습니다. 대상자분들이 돈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에 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대상자분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대상자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 어떤 것이든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하면서 대상자 분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대상자 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노력의 성취감도 느끼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사업은 대상자 욕구 맞춤형에 특화된 지원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위기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단순 사례에는 위기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집중사례에는 여러 자원을 연계하고 더욱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5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계시는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이 사례관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그 마음과 의지, 열정을 매우 존경합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사회복지사지만 함께 일하는 좋은 사회복지사 분들을 보고 배우며 더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밝은 지역사회, 조금 더 행복한 지역주민을 위해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이수현 사회복지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이수현팀장입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 오던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것 같아 부듯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이라는 수상과 함께 포상으로 국내 연수 워크숍을 지원받아 복지관 사례관리팀 간 단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사례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위기와 문제 상황만 두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외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 항목이 정해져 있고, 신청에서부터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실제 지급되기까지 적어도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 1) 사업의 기대효과: 위기 상황 극복, 주요 문제 해결, 대상자의 자립 의지 향상
- 2) 대상자구의 변화: ① 경제적 어려움 경감 ② 가족에 대한 관심 및 애정 향상, 이해 증진 ③ 개별 치료를 통한 아동 기능 향상 ④ 자립 의지 향상 ⑤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

4 동 사업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기억에 남는 지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신청한 가정은 3인 가구로 세대주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웠고 배우자는 척추측만증으로 거동이 어려웠으며 7살 자녀는 발달장애로 케어하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일을 해도 수입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월세는 체납되었고 장애가 의심되는 자녀와 배우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으로 월세 체납금을 지원하고, 생계비로 식료품과 의류를 구입하였습니다. 의료비로 배우자와 자녀의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요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관리자분들. 여러분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고 희망입니다. 파이팅!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임지영 사회복지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임지영 팀장입니다. 우수사례 수상은 동료들과 선배님들과 많이 고민하고 수퍼비전 받으며 수행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 수상에 워크숍 등을 지원해주신 협회와 재단, 복지관의 배려와 지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해 주신 참여주민께 감사합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대상자가 당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그러한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대상자 모두 지원을 통해 '나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신한금융희망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그리고 후원처인 지역상점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4 동 사업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기억에 남는 지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우수사례 대상자 외에도 저장강박이 있지만 집을 치워보고 취업을 위해 대령면허에 도전했던 사례, 한부모 모자가정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방범창을 설치하고 집주인분의 배려를 느꼈던 사례, 그리고 한부모 모자 장애구성원 가정이 갑작스럽게 공적 돌봄 공백에 놓였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아 의료/생활에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5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상자에게 비용적으로 충분한 지원금이 전달되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를 예방하는 점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다는 점에서도 뜻깊습니다. 사례관리자가 두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일뿐만 아니라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주시고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워크숍을 마련해주시는 등 "사회복지사분들을 고생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6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는 혼자가 아니다'를 절실히 다시 느꼈습니다. 곳곳에서 분주히 뛰고 계실 사회복지사분들 응원합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조다영 사회복지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조다영 대리입니다. 해당 가정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던 사업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는 사례관리자가 되겠습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본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초등 저학년인 자녀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였으며 생계와 동시에 부채상환까지 진행하다보니 아버님께서 성실하게 근로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긴급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어머니가 긴 투병 끝에 결국 생사를 달리하셨지만 아버님께서도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을 통해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마음의 짐이 한결 덜하다고 합니다. 또한 도움을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아내의 몫까지 자녀를 더 열심히 양육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학교,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여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버님은 아동 양육에 각별히 노력하시면서 꾸준히 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4 동 사업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기억에 남는 지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례 중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기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호소하던 사례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도와주신 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셨다는 어머니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5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과정에서 사례관리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마을사례관리팀 김영경 사회복지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마을사례관리팀의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학부생 때 하계방학 실습에서 사례관리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10년 전 처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던 1년차 때부터 운 좋게 사례관리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계속해서 사례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 10년 된 해라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사례관리자로서 더욱 발전하라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민관협력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서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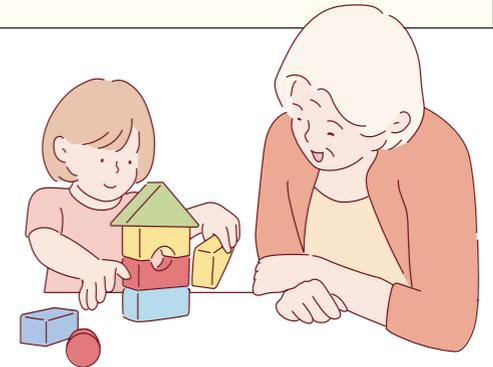
사실 요즘은 민간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정체성, 전문성 등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 시점에서 점점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줄어들고 희망은돌이나 주민센터 긴급지원 외 자원들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쳐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업 소식에 우리 대상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원했습니다.

3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민간기관의 사례관리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원이 한계가 있고 점점 회계 행정서류가 디테일해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사례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영비까지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하여 더욱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가 대상자와 함께 세운 계획과 목표에 따라 개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목표와 계획에 몰두하지 말고 대상자들과 나누는 따스함을 느낀다면 더 행복하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관리자분들 모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신세희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을에서 주민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평화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신세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 분의 삶에 잠시 '쉼'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례관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대상자는 주거퇴거와 관련된 독촉장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생활에 필요한 LPG가스 구매도 하지 못하였고 연탄보일러도 고장나 난방도 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 전기이용료도 체납된 상태라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기본생활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유지를 기대하며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사례관리 초기에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했던 임대료 체납, 공과금 미납을 본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장난 연탄 보일러를 재설치하고 연탄까지 지원하여 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동 사업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기억에 남는 지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살"을 이야기하던 대상자가,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상담 당시 "자살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던 대상자가 "이젠 살 수 있구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본 사업과 사례관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6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온기가 필요한 곳에 37.5도의 꺼지지 않는 난로가 되어주는 사회복지사를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정희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정희 대리입니다. 14년차 사회복지사로 복지관 사업을 끌고 오 경험해 보았지만 사례관리는 오랜만에 맡으면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취약 계층과 더불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감사드립니다. 사례관리에 정답은 없으며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끊임 없는 노력, 지식 습득이 중요함을 느끼며 어려운 복지대상 가구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생활비 지원 뿐 아니라 병원비, 학습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공적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어려운경우도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조손가구로 조모는 딸과 사위가 사망하고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습니다. 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큰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원을 통한 보습학원비 지원 및 활동가 파견을 통한 양육 상담이 진행되면서 점차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손녀를 보습학원에 보내지 못해 기초학력 및 또래관계 부족 등이 우려되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 손녀의 방과후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조모의 돌봄 부담이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4 지원받은 가구에서 사업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어땠나요?

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습비로 지원을 받은 다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의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며 딸이 학원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이를 계기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집에서 간식도 챙겨가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을 보내지 못하였지만 이번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학원을 다니게 된 아이가 친구들과 밝게 노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며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5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이겨낼 힘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때 누군가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고 강점을 찾아 같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대상자 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나아갈 수있기를 응원합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고현정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1 간단한 자기소개와 우수사례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대상자와 마음을 잇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고현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상받은 사례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종결하지 못하는 것이 내심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이번 기회로 오히려 그 과정에 대해 보상과 위로를 받은거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2 동 사업 신청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셨나요?

수상 사례는 폭우로 집이 침수된 사례였는데 병원 가는 일 외에 집에서만 거의 생활하시는 분이라 삶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집이 지원을 통해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했습니다.

3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침대가 생기면서 오랜만에 내 집이라는 느낌을 갖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며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집에만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용기를 내어 다른 분들과 만남을 갖고 혼자 외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원 이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가장 필요로 했던 주거환경문제가 해결되면서 대상자의 일상생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낸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5 전국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상자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라는게 누구 하나 같은 답안이 없어 힘든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대상자, 가족, 그리고 이웃,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사례관리의 가장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5. 사회복지사 어워즈 수상작

- 경기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 경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대구 대구종합사회복지관
- 서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전북 평화사회복지관
- 부산 다행복안종합사회복지관
- 경기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고립·은둔 청년의 희망의 디딤돌

-고립·은둔 청년의 가정해체 극복기

불행의 이유와 형태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진정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듭되는 불행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영훈(가명) 씨에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절박한 순간 전 해진 도움의 손길로 고립·은둔 청년이었던 영훈 씨와 가족은 이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반복되는 불행에 희망을 잃은 가족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영훈(가명) 씨는 형,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부채만 남기고 떠나면서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영훈 씨와 형 역시 어린 시절부터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영훈 씨 형제는 성인이 되자마자 경제활동에 나섰습니다.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형은 창업을 했습니다. 영훈 씨는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코로나19로 창업에 실패하여 악성 채무에까지 시달리게 되면서 가족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영훈 씨 가족은 일상의 작은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족 모두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않았고, 집안에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치아 상태가 심각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선정되며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가 생겼지만 쌓여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사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사비용으로 써야 할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가족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임대아파트 선정이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도록 응원하는 디딤돌

영훈 씨 가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최소 위기에 놓인 임대아파트 입주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우선 임대주택 지원처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이사 기한을 합의하고 영훈 씨와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이사비용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기자 영훈 씨도 그동안과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원금으로 그간 쌓여있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집에 입주하면서 가족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에 필요한 생계비와 의료비도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늘 생활비가 부족했던 영훈 씨 가족은 지원받은 생계비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먹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훈 씨 어머니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의료비 지원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통에서 벗어나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게 된 어머니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훈 씨 가족이 만성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 자립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이었던 영훈 씨는 지원을 받고 가족의 상황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부터 내일의 희망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영훈 씨 가족은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잃어버렸을 기회에 감사하며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희망을 확인한 영훈 씨가 우울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영훈 씨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고민해주는 사회복지사님 덕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영훈 씨네 가족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망하는 대신 미래에는 달랠 수 있다는, 더 나아지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찾아주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발굴과 관리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사 전 거주 환경



이사 후 거주 환경





경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취약가정에 전해진 희망의 빛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세 가족 이야기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인 30대 부부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아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 가정을 불행에 빠뜨린 것은 두 번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근로를 할 수 없었기에 수급비와 적은 소득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기 급급했던 대현씨 가족에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절망의 끝에서 더 큰 희망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례

두 번의 교통사고로 무너진 가족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대현 씨는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또 한 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전처럼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은 온전히 대현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척추측만증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평균보다 낮은 인지수준으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가사 일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ADHD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들 재민(가명)이를 돌보는 일도 온전히 대현씨가 맡아야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몸이지만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하여 사대현씨는 정수기 필터 교체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수입이 50만원 정도였고 당장 부족한 생활비를 휴대폰 소액결제로 대신하다 보니 미납요금이 500만 원까지 쌓여 일하는 곳에서도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받는 월세 21만 원마저 생활비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월세도 3개월째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사는 집에서도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현 씨의 불안과 절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바로 알고 해결책 찾기

대현 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립을 통해 가정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은 대현씨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대현씨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기 전까지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례관리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현씨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월세 체납비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주거비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생계비를 지원받

아 식재료와 반찬, 아이들의 겨울옷을 구입하면서 대현씨 가족은 오랜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재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도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지적 수준을 알게되면서 간단한 집안일도 어려워 하는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재민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ADHD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현씨 부부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재민이의 문제 상황에 대해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으며 부모의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반찬구입 하는 모습



후원품 전달



근로활동 하는 모습



절망적인 고비를 넘어 행복한 미래로

사례관리가 시작될 무렵 대현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고민해준 사회복지사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도움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저의 형편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지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희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도움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대현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으며 자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고비를 넘어 내일의 희망을 되찾은 가족에게 행복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고립·은둔 청년, 꿈을 찾아 세상 속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 이야기

수년간 자신 안에 갇혀 지내며 고립에서 벗어날 능력을 잃어버린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세상 속으로 이끌어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은둔하던 동준(가명) 씨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지원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은둔에서 고립으로, 꿈을 잃은 청년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대학에서 토목을 공부하던 동준 씨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목표를 잃고 은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은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두 동생은 어릴 적부터 키워오던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준씨는 만 29세가 된 지금까지 집 밖은커녕 방 밖으로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은둔 생활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망가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멋대로 자랐고 충치를 몇 년째 방치하여 앞니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3년 전쯤 일러스트에 관심이 생기면서 새롭게 시작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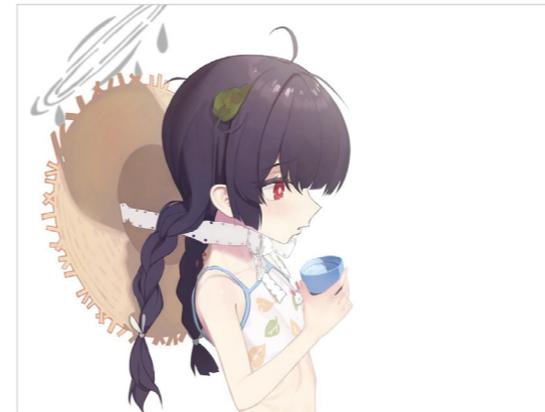


치과 회의

자신감을 되찾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동준 씨는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는 보이면서도 썩어버린 앞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치아만 온전해져도 뭔가 해볼 자신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치과 치료는 그에게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청년의 치과 치료는 공적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준씨를 지원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력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동준 씨는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후, 온전한 치아를 되찾게 되면서 동준씨는 늘 쓰던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준 씨는 이제 외출하는 것을 전처럼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준씨의 외적인 자신감은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일러스트 쪽으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아 동준씨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학



동준씨가 그린 일러스트

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생계비 지원으로는 방안에서만 지낼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옷과 운동화 등 외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면서 집 밖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이 꿈꾸는 내일

동준씨가 치과치료를 받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자립의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언젠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지만, 우선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어요.”

형이 은둔에서 벗어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응원해온 동생 동현씨는 동준 씨의 변화가 자기 일처럼 반갑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형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서 자신감을 많이 찾았어요. 사실 그동안 형을 생각하면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뿐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내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존경스러워 대학에 진학할 때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동준 씨처럼 공적 복지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이 많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대구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중증질환 가족에게 전해진 마지막 위로 -중증질환자 자녀의 돌봄 공백 해결과 일상 회복기

중증질환 환자의 가족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간경화로 투병 중이었던 지현(가명) 씨와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상환중인 남편 형욱(가명) 씨는 사랑하는 아들 준영(가명)이를 마음처럼 잘 보살펴줄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외롭게 버텨온 가족에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례

돌봄 공백과 생활고를 외롭게 버텨온 가족

지현 씨 부부는 시험관 임신으로 힘들게 준영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현 씨가 2021년 간경화 판정을 받으면서 준영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고 간이 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하는 탓에 함께 놀아줄 수도,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형욱 씨가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형욱씨는 삶의 막다른 길에 서있는 기분으로 절망감에 빠져있었지만 사회복지사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며 지금은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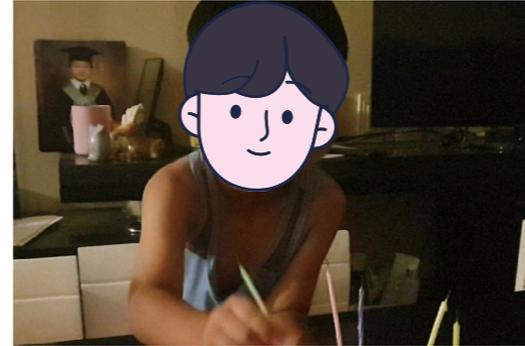
형욱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빚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주 6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물차를 운전해 월 2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매달 개인회생 상환금과 월세에 병원비까지 내야 하는 지현 씨 가족에게는 늘 부족했습니다. 지현 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드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주 1회 진료를 월 1회로 줄이고도 아픈 자신을 탓했습니다.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을 채워준 도움의 손길

지현 씨 부부는 준영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지자원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정보도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만나 다양한 복지자원을 알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준영이가 가족에서 모자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아 밝은 성격인 준영이는 지역아동센터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릴 형, 누나, 친구들이 생겨서 혼자 심심해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 1회 밀반찬 배달과 후원품을 제공하여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던 준영이의 바람이 이루어지면서 지현 씨도 마음의 짐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늘 병원비, 생활비, 교육비가 부족해 전전긍긍하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아 생긴 여유로 그동안 자꾸 작아지는데도 바뀌지 못했던 준영이 새 옷도 사주고 좋아하는 먹거리도 넉넉하게 사주었습니다. 또 부담되던 월세를 지원받았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LH전세 임대를 신청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을 불러오는 마중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엄마가 아파하는 것이 그저 싫었던 준영이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만 아플 수 있는 거야? 엄마, 잘 가. 나도 잘 지낼게"라며 씩씩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지현 씨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준영이와 형욱 씨 그리고 먼저 떠난 지현 씨에게 이별이 슬프고 아프지만은 앓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늘 부족한 상황이 가슴 아팠다는 형욱 씨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아내가 마지막 순간 만큼은 병원비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준영이 좋아하는 고기도 사주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파티를 하며 엄마와 함께하는 추억도 만들었죠.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준영이에게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위기를 겪는 가정에 힘을 주는 행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 생명전화종합사회복지관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의지를 되찾는 여정 -고립·은둔 청년의 변화 이야기

한때 죽음을 생각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준원(가명) 씨는 좁은 고시원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게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든 빛이 아직 연약한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준원 씨가 어렵게 되찾은 삶의 의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준원 씨는 홀로 서울에 올라와 반복되는 좌절을 겪으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잘살아 보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과의 불화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준원 씨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게임에 빠져들었고, 혼자 고시원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은둔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빛이 쌓여갔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지인에게 빌린 돈이 1,5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통신비를 내지 못해 수신과 발신이 정지되면서 세상으로부터 더욱 고립된 준원 씨는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죽어서 보험금이 나오면 빛은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에 자살까지 시도할 만큼 삶에 지쳐있던 순간, 준원 씨의 손을 잡아준 것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준원씨가 젊고 가족이 있어 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을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준원씨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고비에 전해진 긴급처방전

준원 씨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에 입소하면서부터입니다. 고시원은 은둔·고립에서 벗어나기 힘든 환경인 데다 월세를 낼 능력이 없어 주거 불안도 컸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민관 사례회의에서 리커버리센터 입소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회의에 준원 씨가 함께 참석하여 스스로 리커버리센터 입소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설 입소 이후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준원 씨는 행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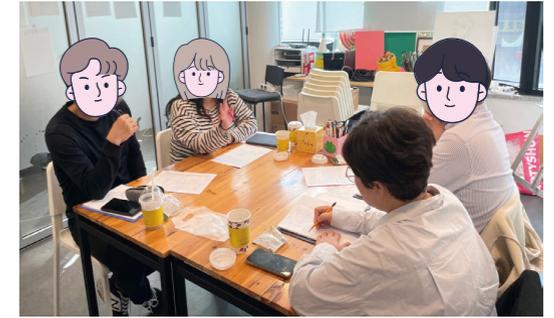


당사자 참여사례 회의 1차

고 의미 있는 삶을 되찾고 싶다는 목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하면서 설거지, 주방 보조 등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성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빛은 준원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으로 매달 부채를 상환하고 있지만 소득활동을 할 만큼 회복될 때까지는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생계비 45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준원씨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준원씨는 스스로 부채 상환과 지출 계획을 세우며 자립에 대한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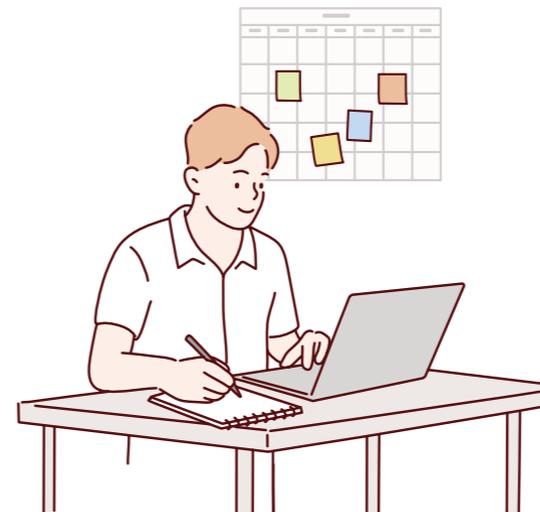
또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병원비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정신과 검사와 진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은 준원씨는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려는 준원 씨의 의지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위) 당사자 참여사례 회의 2차
(아래) 당사자 참여사례 회의 3차

고립과 은둔을 딛고 함께하는 삶을 향해

요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준원 씨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길을 찾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제는 저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진단 검사도 해주면서 신경 써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싶습니다."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갖게 된 준원 씨는 다른 고립·은둔 청년들도 자신처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갇혀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도움이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의 세계를 구하는 일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전북 평화사회복지관 단절된 1인 중장년 가구에 빛과 온기를 -중장년 1인가구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공요금 미납 고지서가 쌓여가는 집에서 악화된 건강과 홀로 싸워야 했던 지난 몇 년간, 정수(가명) 씨는 생존을 위협받는 불안을 견뎌야 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있던 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정수 씨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례

출고 어두운 집에서 버텨온 시간

정수 씨는 오래된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자녀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수년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고가 끊긴 자녀의 주소지가 정수 씨의 집으로 되어 있는 탓에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수씨의 어려운 사례가 복지관에 의뢰되어 사회복지사가 처음 가정에 방문했을 때 정수 씨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은 전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고 연탄보일러도 수명이 다해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통신비가 연체되어 휴대전화는 이미 끊겼고, 전기와 수도도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은 고장이 나고 LPG 가스를 충전할 돈도 없는 탓에 부탄가스를 아껴가며 최소한의 조리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정수 씨는 언제라도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병원에 가고 약을 살 돈이 없어 방치했던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독촉장과 점점 나빠지는 건강, 열악한 주거환경,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현실에 정수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가 출고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따스한 온기와 빛을 전해줄 도움이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집중 지원

정수 씨는 공적 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꺼려하는 정수 씨를 설득해 여러 번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의 '주거 불명신청'을 하고 긴급생계비지원과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그간 쌓여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부족했기 때문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지원사업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주택 전등 교체 모습



보일러 교체 전



보일러 교체 후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아 밀린 월세와 체납된 공공요금을 납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탄보일러를 교체해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고, 음식을 해먹기 편하도록 가스레인지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던 전등과 스위치도 교체하면서 비록 낡았지만 따뜻하고 환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는 정수 씨는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지원받은 생계비로 식재료를 구입해 새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식사만큼은 앞으로도 제대로 챙겨먹을 생각입니다.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관리도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의료비 지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약을 사먹지 못해 방치해온 탓에 심해졌던 증상도 찾아들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면서 정수 씨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수 씨는 통신비가 연체되어 공중전화로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복지사님을 만나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젠 살 수 있겠구나 안심이 됐죠. 아직 건강을 좀더 회복해야 하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어서 일을 시작해서 혼자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수 씨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을 통해 정수 씨가 바라는 삶에 필요한 도움이 제공되었고, 정수 씨는 스스로 삶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요리'라는 관심사가 있고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50년 넘게 살아온 고향집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대상자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지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명절음식 전달 및 부탄가스 전달

부산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조손가정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가족과의 이별...그리고 조손 가정의 일상 회복하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는 신경 쓸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한창 나이에도 쉽지 않은 학부모 역할을 70대 나이에 감당하게 된 정순(가명) 씨는 홀로 남겨진 손녀 은지(가명)에게 마음처럼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조손가정의 양육 공백을 채워주며 정순 씨와 손녀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례

홀로 남은 손녀를 지켜주고 싶지만

정순 씨는 간경화로 갑작스럽게 딸을 잃고 손녀 은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 오빠와 헤어지고 엄마마저 잃은 은지는 얼마 전 아빠까지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딸과 이혼해서 살던 사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순 씨는 부모 없이 남겨진 손녀가 안타까워 부족함 없이 잘 돌보고 싶지만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심한 데다 당뇨까지 있는 몸으로 한창 자라는 은지를 챙기는 것이 힘에 부칩니다. 한글을 모르니 학교 공부를 봐줄 수도 숙제를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딸의 간경화 치료비로 진 빚도 다 갚지 못한 데다 정보보조금이 수입의 전부여서 월세까지 내고 나면 생활비가 늘 부족했기 때문에 다니던 학원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된 후 가족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는 어린 은지를 보며 정순 씨는 그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정순 씨의 짐을 덜어줄 사회적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손녀 양육상당

마음의 짐을 덜고 행복을 찾아가는 가족

정순 씨는 은지를 키우면서 학교 숙제와 공부를 전혀 봐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미안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던 은지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교육비 신청을 통해 다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즐거워하는 손녀의 모습에 정순 씨도 힘이 납니다.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관계망으로 촘촘하게, 부족함을 채우다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요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고 막막했던 정순 씨는 늘 은지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통해 알게 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으로 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은지를 학원에 다시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통해 은지를 키우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은지도 학원에 다니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며 한결 밝아졌고요. 딸과 사위가 죽고 나서 막막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은지를 키우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었던 정순 씨의 고민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는 사회복지사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유기적인 협업이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탄탄한 복지 관계망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면서 은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정순씨는 버겁던 양육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도움으로 은지에게 부족한 것들을 챙겨줄 수 있게 되면서 정순 씨도 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어지럽게 방치되었던 집안을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정리하면서 은지의 공부방을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지원받은 생계비로는 요즘 부쩍 키가 큰 은지의 새 겨울옷을 장만했습니다. 은지를 다 키울 때까지 버티지 못할까 봐,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지금만큼도 챙겨주지 못할까 봐, 은지를 키운 후로 건강 걱정이 더 커진 정순 씨 부부의 병원 진료도 신한금융희망재단 의료비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정순씨는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던 생활에서 벗어나 손녀와 함께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운 변화 -중장년 1인가구 장애인 당사자 이야기

건강을 잃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몸이 아프고 움직이기 불편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일은 못하는데 치료비까지 들어가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집니다. 원호(가명)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환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일시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원호씨에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사례

밑 빠진 독처럼 계속되는 문제들

원호 씨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른발과 왼발 일부를 절단하고도 과사가 시작되어 다시 절단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왼쪽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뇨와 함께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원호 씨는 집에서 병원까지 혼자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가며 살림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좁은 집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빌려 겨우 계약한 낡은 지하 집은 장애가 있는 원호 씨가 혼자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여름에는 장맛비에 집이 침수되었는데 정화조 넘친 물이 섞여 들어오면서 옷과 침구가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장판도 직접 갈 만큼 손재주 좋은 원호 씨지만 휠체어로 움직이기 힘든 좁은 집에서 발 없이 엉망이 된 집을 수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원호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픈 곳이 많다 보니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비 부담이 상당해 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월세를 낮추려 집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 탓에 침수로 인한 공사비까지 부담하면서 월세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침수된 침대도 옷가지도 새로 장만하지 못하고 지내던 원호 씨에게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되찾아준 지원

원호 씨는 오른발을 절단했던 4년 전부터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계속되는 통증과 수술, 질병, 주거불안 문제가 끊없이 생기다 보니 여러 기관과 연계해 긴급의료비, 장판 교체, 밑반찬, 장애 신청, 전동휠체어,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계속 받는데도 당장 급한 불만 겨우 끄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도 벅차하던 원호 씨에게 긍정적인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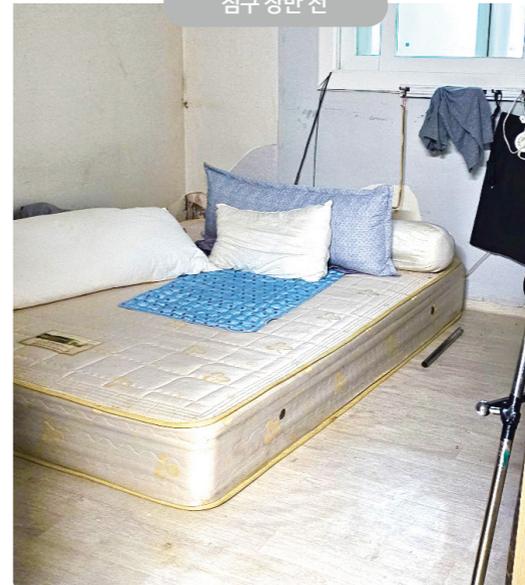


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침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을 무엇보다 힘들어하던 원호 씨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아 새 옷과 침구를 장만하고 간절히 원하던 돌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침수의 상처에서 벗어난 원호 씨는 사회복지사와 만난 이후 가장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한 잠자리에 누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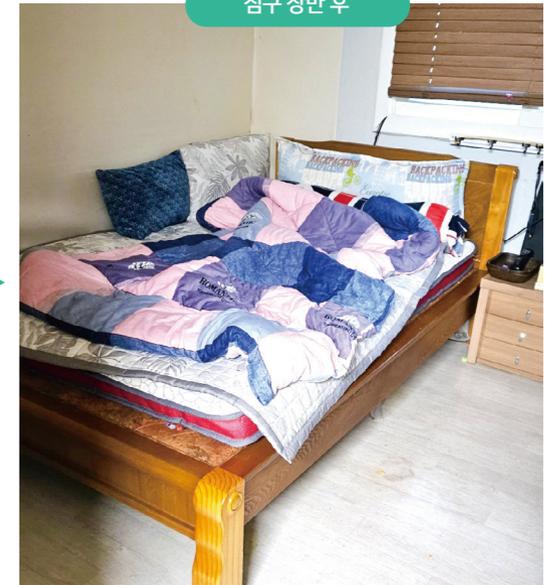
비로소 “내 집이구나” 안심이 되면서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원호 씨. 다리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앞두고도 의연하게 수술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원호 씨는 혼자 집안에만 머무르는 대신 전동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웃들과도 관계를 쌓아가며 좋아하던 낚시나 요리 같은 취미활동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침구 장만 전



침구 장만 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다짐

끝이 없을 것 같던 원호 씨의 사례관리는 이번엔야말로 긍정적인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집에 있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이제는 잠자리가 편안해서 잠도 잘 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비록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지만 더 아파지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새 침대와 새 옷은 안 좋은 일만 계속되던 원호 씨의 삶을 위로하며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이 원호 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지원은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원으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